

# 주어진 현실, 고정관념 장벽 넘어 '미래' 열어야



이 한 구  
미래문명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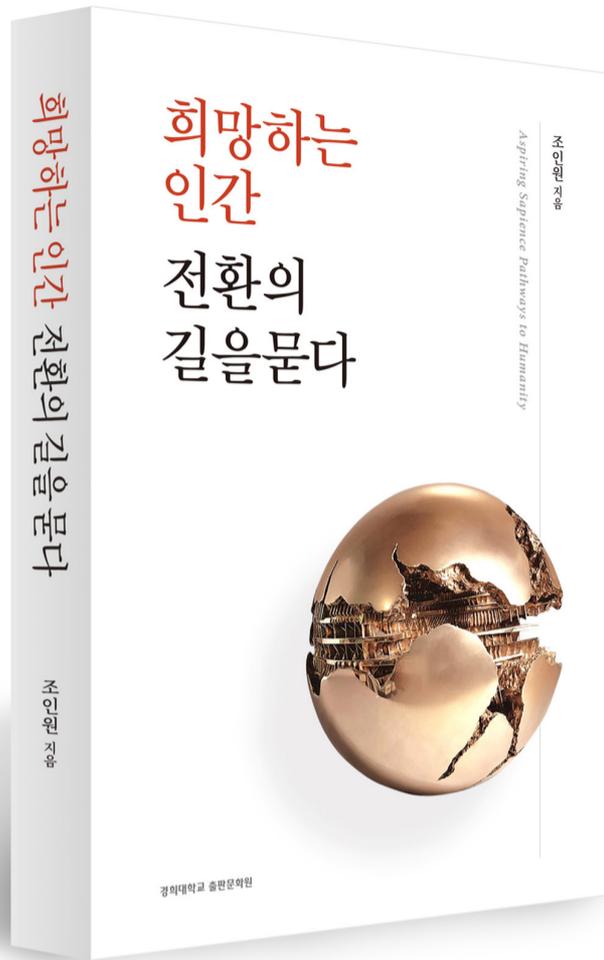
명연설은 시공을 넘어 긴 울림과 감동을 준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의 행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시대의 문제와 고민,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 번의 짧은 연설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경우도 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행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그 후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마틴 루터 킹이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면서 행한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애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은 지금도 많은 인권운동가들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런 명연설은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간결하면서도 그 시대의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동시에 그 메시지에는 오랜 숙고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번에 출간된 조인원 박사의 『희망하는 인간: 전환의 길을 묻다』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경희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경희의 신화를 창조한 조인원 박사의 각종 연설문들을 모은 것으로, 그의 현실 인식과 고뇌와 비전을 모두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저자의 현대문명관, 학문교육관, 정치사회관, 미래비전 등을 폭 넓게 엿볼 수 있다.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현실을 전환의 시대로 규정한다. “희망과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전환의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산업화, 세계화, 첨단화의 문명사적 과고가 그 어느 때보다 드세지만, 그것이 과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 우리는 어쩌면 아주 큰 전환의 시대 도래와 함께 “멸절 아니면 진화”라는



『희망하는 인간: 전환의 길을 묻다』

(사진=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제공)

“**학문이란 무지의 자각 위에서 미지의 세계로 도전해가는 것이며, 대학이란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관**”

극단의 선택지를 받아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16쪽)

현대 문명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낙관보다는 오히려 비관 쪽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저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희망을 찾는 존재(Homo esperance)’입니다. 필멸의 존재지만 삶과 죽음 사이에서 희망의 지평을 찾아 나섭니다.”(282쪽) 저자가 이 책의 제목을 ‘희망하는 인간’으로 정한 것도 이런 태도의 표현으로 읽힌다.

학문과 대학을 바라보는 자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에서 실천의 세계로까지 나아간다. 말하자면, 학문이란 무지의 자각 위에서 미지의 세계로 도전해가는 것이며, 대학이란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학문의 중추인 과학과 인문의 세계, 그 세계의 위대한 가능성은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나를 가둔 알을 깨는 책임을 말합니다. 모름의 세계로의 도전은 자신과 세상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129쪽) “대학은 전통적으로 상아탑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대학의 유서 깊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대학이 학문만을 위한 학문을 넘어, 인류가 안고 있는 공동의 위협에 학문적, 실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학문의 시작은 인간입니다. 그 끝도 인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은 생명과 자연, 사회와 세계를 위한 실천의 세계로 활동 범주를 넓혀야 합니다.”(169쪽) 아마도 저자의 이런 학문 교육관이 경희를 일류 명문 대학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도 남다르다. 시민사회가 인류 문명의 문제들을 앞장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2009년 세계시민 포럼 의장 개회사에서 저자는 지구사회의 교류 협력과 인류애, 지구애를 향한 세계 시민의식의 함양을 강조한다. “나라 차원에서 사회의식이 중요합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지구애의식이 필요합니다. 벽과 경계를 넘나드는 의식, 차이와 소통하는 의식, 인류와 지구의 안위를 존중하는 의식 없이는 인류 의제는 제한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를 수렴하는 의식이 시급한 이유입니다.”(170쪽)

저자의 시선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여러 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에도 최선을 다해 항상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보려고 애쓴다.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건다. 또한 저자의 관심은 개인을 넘어 사회와 자연, 그리고 우주의 궁극적인 실재에까지 미친다. 특히 저자는 주어진 현실과 고정관념의 장벽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의 비상을 제시한다. 이것은 바로 저자가 주장하는 ‘포월의 정치’이기도 하다.

학자이며 실천가로서 세계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행동하는 지성인 저자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인류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선각자의 외침같이 들린다.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인류 사회는 임박한 재앙과 붕괴의 가능성을 직면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과국을 헤쳐 갈 삶의 지혜, 실천 과제를 지체 없이 수행해야만 한다. 거대한 ‘전환적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생명과 자연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의 미래를 여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다.”(6쪽)

경희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시대의 여러 문제들에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꼭 일독을 권하고 싶다.